

초연결사회 '여백'의 자유 빼앗긴 우리 시대 이야기

“당신이 1985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인터넷이 없던 때와 있는 때를 모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이다. 당신은 ‘인터넷 전’에서 ‘인터넷 후’로의 순례를 하고 있다. (1985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인터넷 이전의 환경에서 성인 시기를 살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한 발은 해변에 놓고 한 발은 디지털의 바다에 담긴 ‘걸쳐 있는 세대’로서, 우리는 이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독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다. 그리고 모든 이민자가 그렇듯이 새로운 세계가 늘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우리에겐 심포가 필요하다

마이클 해리스 지음, 김승진 옮김

과 ‘후’ 사이에서 문화변역을 시도한다. 캐나다의 가장 주목받는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직 기자 출신인 마이클 해리스의 책 ‘우리에겐 심포가 필요하다’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초연결시대 흥미로운 변화로 ‘여백의 종말 혹은 결핍의 상실’을 든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한가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휴식 시간마저도 온라인 콘텐츠로 채워진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이상 진정한 미의 자유 시간은 없다.

책에는 온라인에 연결된 삶에 대해 역사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그리고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집중



현대인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통신망으로부터 잠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복잡한 연결사회에서 어느 연결이 중요인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암사 제공>

인간의 기억·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실현 인터넷 없던 세상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증언

력 저하부터 인간의 기억과 컴퓨터 메모리의 메커니즘 차이, 온라인 성폭력과 집단 괴롭힘 등 사이버상의 범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걸쳐 있는 세대’의 증언을 통해 저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묶인 일상을 실험하고 성찰한다. 특히 기억, 집중력, 사고 등 삶의 소중한 부분 등을 다루며 오늘날

의 통신 환경도 매체의 계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파피루스부터 인쇄술 그리고 트위터까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의 모든 혁명은 우리가 무언가에 다가가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는다.”

저자는 테크놀로지의 위력은 구텐베르크 인쇄 혁명에 견줄 만하지만 변화를 체득하는 속도는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한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공지영 지음

등단 이후 1200만 부 누적 판매부수를 기록한 공지영 작가. 공작가가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정리한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를 발간했다.

‘해리’,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의 장편으로 사회적 압과 패단을 비추고 ‘상처 없는 영혼’,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등 에세이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전했던 작가가 2012년 출간했던 책을 개정증보판으로 펴낸 것이다. 책에는 최근 출간한 ‘높고 푸른 사다리’, ‘딸에게 주는 레시피’, ‘시인의 밥상’,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해리’의 문장이 추가됐다.

총 365편으로 이뤄진 책은 사랑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작가는 “사랑만이 내가 살아 있는, 그리고 나를 살아 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견뎌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한다. 사랑이 삶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또한 고통 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작가 스스로 험겨운 날들에 부딪히면서 쌓아 올린 생의 의미는 사랑만이 살아갈 용기이며 위안임을 전한다.

작가는 상처는 살아 있다는 징표이며, 사랑으로 삶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님을 일깨운다.

책에는 작가의 일상을 담은 32컷의 사진들도 수록돼 있어 보는 맛을 더해준다.

“30년 동안의 저작들을 다시 정리하며 나는 세상 나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로서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지, 인간으로서의 나는 또 얼마나 지극한 사랑 속에 살았는지 말이다. (중략) 내게 밥을 주고 내게 아이들의 양식을 주고 내게 술을 주었던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냄·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골든 에이지

김희선 지음

첫 소설집 ‘라면의 황제’와 첫 장편 ‘무한의 책’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김희선 작가가 두 번째 소설집 ‘골든 에이지’를 펴냈다.

경이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번 작품집에서 작가는 한 층 넓어진 소설세계의 지평을 펼쳐 보인다. 사회문제의 본질과 이면에 드리워진 여러 문제를 꿰뚫어보는 시선은 더욱 첨예해졌고 감정의 깊이와 농도도 더 깊고 진해졌다. 책에는 2019년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 ‘공의 기원’도 수록돼 있다.

상관 없이 보이던 과거와 현재의 사건, 이곳과 저곳의 기구한 사연을 하나의 서사로 풀어내는 작가의 입담은 ‘골든 에이지’에서도 두드러진다. 현대식 추궁공을 개발한 사람이 개항기 이전의 조선인이었다거나(‘공의 기원’), 예상을 뒤엎은 노벨문학상이 사실은 외계인들의 제비뽑기로 결정됐거나(‘18인의 노인들’), 도심의 싱크홀이 지구의 곳곳을 잇는 통로의 입구(‘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허황된 상상이 펼쳐진다.

표제작 ‘골든 에이지’는 작가가 그간 소설로 표현할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의 아픔에 대한 작품이다. 소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하나뿐인 손주를 잃은 어느 노인의 마지막 선택을 그렸다.

세월호의 비극은 어느새 잊혀졌지만 노인은 손주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바람이 담겼다.

김영 평론가는 “김희선 소설이 줄곧 한시성으로 절정된 시간, 거기에 묻혀 잊진 존재와 비밀들, 망각에 힘입어 은밀하게 결모습을 바꾸며 되풀이되는 비탄의 기원을 불러일으켜서 바로 그 한시성과 망각에 따른 반복에 저항했다”고 평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애도 계약이다

박수빈 지음

‘연애도 계약이다’의 지은이인 현직 변호사 박수빈씨는 “연애를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많은 것이 명확해진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에 책과 동명 칼럼을 연재한 지은이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나를 지키며 연애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불법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연애가 아닌 것’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책은 ‘상대방이 연애를 계약의 관점에서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즉 ‘나를 동등한 주제로 보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고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사람을 걸러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듯 연애도 마찬가지다. 데이트폭력 등 범죄는 애초에 계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디는 ‘열번 째’ 범죄, 연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긴다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대처법,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불법영상물 유포에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 등의 상세한 법적 조언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은이는 연애를 계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이타타산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바라보고, 물어보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다.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덜 아프고 더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창비·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4월호

3월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새로운 관광 트렌드 시티투어

— 알뜰한 매력의 ‘시티투어’ 마니아 증가
— 9900원의 행복 ‘남도한바퀴’
— 뉴욕의 명물 ‘더 라이드’

특집

새봄 이야기
꽃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꽃차의 매력과 음용법

해외 문화 현장

“세계를 위한 세계의 박물관”
런던 영국박물관

문화 화제
정윤성 오페라 ‘망부인’ 복원의 두 주역
연출 정갑근 감독, 번역 양희석 교수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

12집 가번으로 관객과 행복 나누는 김영록씨
“놀이가 일이 되면 일상엔 즐거움이 흐르죠”

나무 인문학자 강판권

“나무와 더불어사는 삶 권합니다”

문양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문학의 숲에 뜬 별들의 고향
장흥 천관문학관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우리나라 첫 공공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성과 특속음식
‘윤선도의 무릉도원’ 보길도
최고급 술안주 전북포

트렌드 따라잡기
세대, 장소 떠나
EDM이 대세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장편 ‘메이드 인 강남’ 펴낸 작가 주원규
질문 던지는 사진작가 문선희
KIA타이거즈 영어 특역 담당 도영빈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게오르크 짐멜 vs. 발터 벤야민

전시 리뷰 <이정섭의 스케치 여행이야기>전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
남도 영화사의 증인-광주극장
예술전문관 지키며 100년을 꿈 꾸다

문화로 함께 단 세대를, 순지에게
창고, 청춘문화공간으로 변신
순천만국가정원 불나들이 ‘딱!’